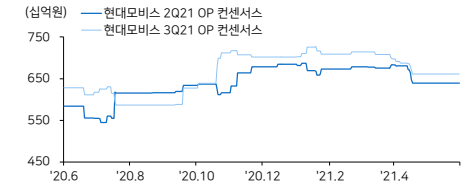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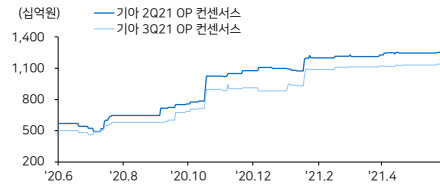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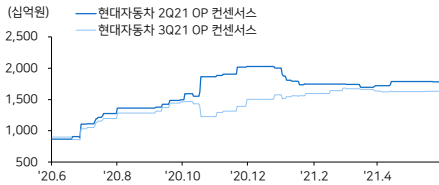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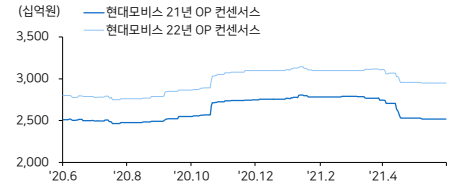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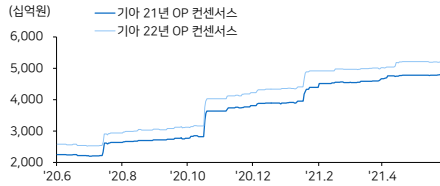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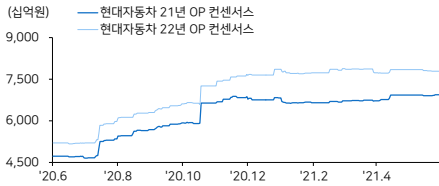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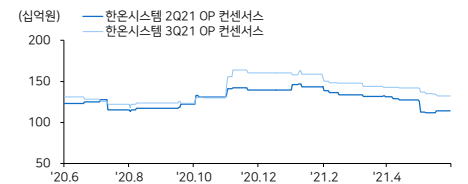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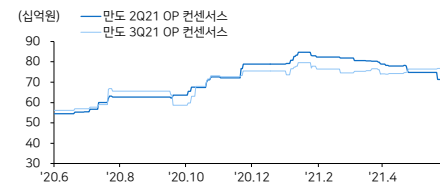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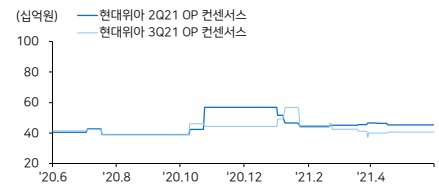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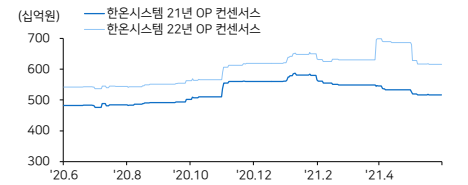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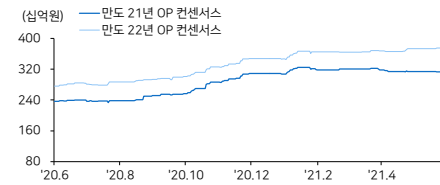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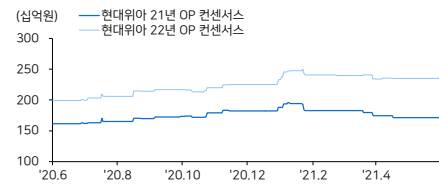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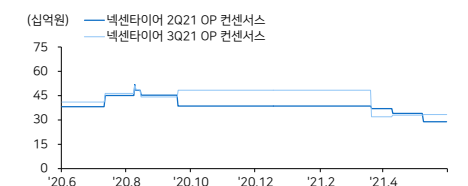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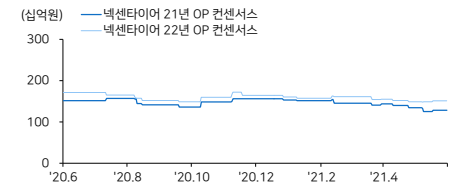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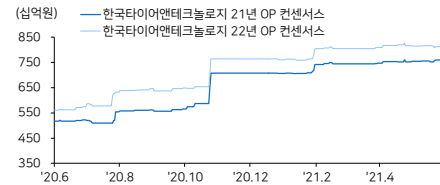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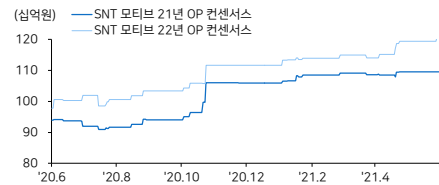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정의선, 미국 보스턴에서 자율주행택시와 로봇사업 추진현황 점검 (비즈니스포스트)

16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13일 미국 출장을 떠나 보스턴에 있는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Motional)' 본사를 방문 해 자체 자율주행기술 개발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함. 특히 모셔널 본사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 <https://bit.ly/3zxVn66>

플라스틱 줄이고 전기·수소차 확대... 정의선 "사회적책임 고민" (조선비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ESG 경영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직접 결과를 챙기는 중.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각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ESG 경영 실행과 관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침. <https://bit.ly/2S6u075>

삼성·현대차·한온시스템 투자·솔리드파워, 나스닥 상장 첫발 (THE GURU)

미국 전고체 배터리 스타트업 '솔리드파워'가 SPAC 합병을 공식 선언하고 기업공개(ipo)에 서둘러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LG ES와도 합작사설과 합병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https://bit.ly/2S0gMnH>

GM, 전기차 투자 39조로 확대... 배터리 공장 더 짓는다 (THE ELEC)

GMI '25년까지 전기차 투자금액을 기존 계획보다 30% 늘린 39조 원으로 상향함. '25년까지 전기차 모델 30종을 공개할 계획이며, LG ES와의 합작사설(일명셀즈)은 오하이오주 북동부에 배터리 1공장을, 테네시주 스프링필드에 2공장 건립 예정. <https://bit.ly/3gKknFo>

현대차 아이오닉 5, 조립 불량으로 냉각수 누수 발생...화재 위험은 없어 (조선비즈)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4월 출시한 브랜드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에서 냉각수 누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현대차는 배터리 송온시스템의 부품조립불량으로 이 문제가 발생 중이며 문제 차량 규모를 확인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https://bit.ly/2U3gl7i>

르노 조에, 1회 충전 주행거리 765km...코나EV 1000km 비교 (THE GURU)

르노 대표 소형 전기차 '조에'가 1회 충전 주행거리 764.9km(WLTP)를 기록하며 2018년 대비 200km 향상된 모습을 보였으나, 현대차 코나 EV의 1회 충전 주행거리 1000km 대비 뒤처진 기록으로 나타났다. <https://bit.ly/2SE19m7>

전기차 확산 가장 큰 걸림돌은 '충전'보다 '주행거리' (디지털투데이)

실제 전기차 운전자들이 지적하는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은 충전보다 주행거리인 것으로 파악됨. 1회 만충 시 주행할 수 있는 최대주행거리는 더 늘어났으면 하는 것이 전기차 운전자들의 공통된 개선 희망사항으로 나타났다. <https://bit.ly/3q8j8gX>

구글 자율주행 전문 웨이모, 25억 달러 투자 받는다 (ZDNet Korea)

구글의 자율주행 전문 자회사 웨이모가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라운드에 시작했다고 CNBC가 15일(현지시간) 보도함. 이번 투자 라운드 역시 웨이모가 아직은 외부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짐. <https://bit.ly/35u5c7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 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